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1] (유형편, p.110)

<서 사>

오산(烏山) 서(西)[2] 외로온 ᄆᆞ을 이 내의 도구(菟裘)[3]로다
석전모옥(石田茅屋)애 종로(終老)호랴 기약(期約)터니
명강(名韁)[4]에 힘이 이셔 십재(十載)를 분주(奔走)ᄒᆞ니
천장홍진(千丈紅塵)[5]애 검은 머리 다 셰거다[6]
전원(田園)이 거츨거든 송국(松菊)을 뉘 갓고며[7]
구맹(鷗盟)[8]이 차 잇거니 학원(鶴怨)[9]이라 업슬소냐[10]
여관(旅館) 청등(靑燈)애 장석음(莊舃吟)[11]을 제 뉘 알리
환해풍랑(宦海風浪)[12]이 졸연(猝然)히 니러나니
저어(岨峿)[13]ᄒᆞᆫ 고종(孤蹤)[14]이 죄(罪)ᄂᆞᆫ 어이 짓도던고
명시부견(明時負譴)[15]ᄒᆞ야 더딘 몸이 되야시니
지지(遲遲)[16]ᄒᆞᆫ 행색(行色)이 권련(眷戀)[17]ᄒᆞ다 어이ᄒᆞ리
서호구업(西湖舊業)[18]에 필마(匹馬)로 도라오니
적막(寂寞)ᄒᆞᆫ 황촌(荒村)애 파옥수간(破屋數間) 뿐이로다
어와 이 생애(生涯) 이리 ᄒᆞ야 어이ᄒᆞ리

<서 사>

금오산 서쪽의 외로운 마을이 내가 여생을 보내는 곳이다
돌밭이 있는 초라한 집에서 늙도록 살다 죽으리라 기약하였더니,
명예욕을 못 이겨 십년을 분주하였더니,
혼란한 속세에 검은 머리가 다 하얘졌구나.
전원이 거칠거든 소나무와 국화를 누가 가꾸며
갈매기와의 약속이 차 있으니, 학의 원망이 없을 것이냐.
여관의 푸른 등에 고향 그리워 하는 슬픈 노래를 누가 알겠느냐?
벼슬살이의 여러 장애가 갑자기 나타나니
험난한 세상사에 외로운 처지가 되어 버리니, 죄는 어찌 지었던가.
태평한 시대에 자주 책망 받게 되어 임금에게 내쳐진 몸이 되었으니
떠나기 아쉬워 하며 뒤돌아 보며 미련을 가진다 한들 어찌하리.
서호의 옛 집으로 한 필 말로 돌아오니
적막하고 황폐한 마을에 부서진 집 몇 칸 뿐이로다
아, 이 생애를 이리 하여 어찌하리

<서사>에서는 시적 화자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배경을 진술하고 있다. 귀거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으나, 40여년의 벼슬 살이를 그만 두고 낙향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신계영은 사직 후 충남 예산으로 낙향하여 월선헌(月先軒)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이 시가는 월선헌 주변 자연 경치를 계절 변화에 따라 그려낸 작품이다.
2) 오산: 충남 예산의 금오산
3) 도구: 중국 노나라의 지명으로, 노나라(공자도 노나라 사람이다)의 제 13대 임금인 은공이 제위를 물려준 뒤 이곳으로 낙향하여 여생을 보내려 하였다. 공자의 「춘추」, <은공편>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후 도구는 관직에서 은퇴하여 여생을 보내려는 곳의 의미로 문학 작품에 사용되었다.
4) 명강: 명예라는 올가미(=굴레)
5) 천장홍진: 천 길 붉은 먼지(=혼란한 속세)
6) 이 시가의 작가인 신계영은 40여년의 관직 생활을 하고, 79세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명강에~다 셰거다'의 두 구절은 그의 생애를 고려할 때, 오랫동안 관직 생활을 하며 나이가 든 본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7) 속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나오는 전원장무호불귀(田園將蕪胡不歸-전원이 황폐해지려 하거늘 어찌 돌아가지 않으리오?)와 유사한 구절)
8) 구맹: 갈매기와 귀거래(歸去來-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겠다고 맺은 약속
9) 학원: 학의 원망, 귀거래 하겠다는 기약을 스스로 어긴 데 대한 자책을 자연물(=학)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10) 직전 행과 마찬가지로, 시적 화자가 귀거래 하는 이유가 제시되고 있음.
11) 장석음: 고향을 생각하는 슬픈 노래(중국 전국시대 월나라 사람 장석이 초나라에서 벼슬을 했는데, 병이 들자 월나라를 생각하며 고향 노래를 불렀던 것에서 유래)
12) 환해풍랑: 벼슬살이의 여러 장애물(신계영은 74세에 전주부윤이 되었다가, 76세에 호남관찰사 허적의 미움을 사 전주부윤을 그만 두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진술로 추정됨)
13) 저어: 산길이 울퉁 불퉁함(여기서는 세상사의 험난함을 뜻함)
14) 고종: 도와주는 사람 없이 외로운 처지에 있는 몸
15) 명시부견: 올바른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성대에 질책을 받아
16) 지지: 떠나기 아쉬워 하는 모습
17) 권련: 뒤돌아 보며 미련을 가짐
18) 서호에 있는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집. 중국 전국시대 월나라 책사 범려가 오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오왕 부차에게 미인계를 위해 중국 4대 미녀로 꼽히는 서시를 바치는데, 오나라 멸망 이후에 서시와 함께 서호에서 여생을 보냈다는 민간설화가 전해진다. 여기서는 '고향의 집'을 뜻한다.

<본사 1- 춘경>

원림(園林) 노픈 고ᄃᆡ 소당(小堂)을 지어 내니
헌창(軒窓)이 소쇄(瀟灑)ᄒᆞᆫᄃᆡ 안계(眼界)조차 너ᄂᆞᆯ시고
삼경(三逕)[1] 송황(松篁)은 새 빗ᄎᆞᆯ 띄여 잇고
십리(十里) 강산(江山)이 망중(望中)의 버러시니
월호풍령(月戶風櫺)[2] 일 업시 비겨 이셔
듯거니 보거니 승취(勝趣)[3]도 하도 만타
호천(湖天) 봄 빗치 두병(斗柄)[4] 죠차 도라 오니[5]
양파(陽坡) ᄀᆞᄂᆞᆫ 풀이 새 엄[6]이 푸ᄅᆞ럿고
사정(沙汀) 약(弱)ᄒᆞᆫ 버ᄃᆞᆯ 녯 가지 누울[7] 저긔[8]
강성(江城) 느ᄌᆞᆫ 빗발 긴 들흐로 건너 오니
청상(淸爽)ᄒᆞᆫ 뎌 경개(景槩) 시흥(詩興)도 돕거니와
약포산전(藥圃山田)을 하매면 가리로다
이바 아ᄒᆡ들아 쇼 죠히 머겨스라
여와씨(女媧氏) 하ᄂᆞᆯ 깁던[9] 늙은 돌히 나마 이셔
서창(西窓) 밧 지쳑(咫尺)의 난봉(亂峯)이 되어시니
싸커니 셔거니 기괴(奇怪)도 ᄒᆞᆫ뎌이고
장송(長松) 흣션 속의 포기마다 고지 픠니
적성(赤城)[10] 아젹 비예 블근 안개 저젓ᄂᆞᆫ ᄃᆞᆺ
술 ᄎᆞ고 노ᄂᆞᆫ 사ᄅᆞᆷ[11] 뷘 날 업시[12] 올라가니
난만(爛漫)ᄒᆞᆫ 춘광(春光)이 몃 가지나 샹톳던고
금오산(金烏山) 십이봉(十二峯)이 대야(大野)의 둘너시니
ᄂᆞᄂᆞᆫ ᄃᆞᆺ 머므ᄂᆞᆫ ᄃᆞᆺ 기상(氣像)도 기승(奇勝)ᄒᆞ다
다사(多事)[13]ᄒᆞᆫ 청람(靑嵐)이 취대(翠黛)[14]예 빗겨 이셔
모ᄃᆞ락 흣ᄐᆞ락 태도(態度)도 할셔이고
창연(蒼然)ᄒᆞᆫ 진면목(眞面目)이 뵈ᄂᆞᆫ ᄃᆞᆺ 숨ᄂᆞᆫ 양은
용면호수(龍眠好手)[15]로 수묵병(水墨屛)을 그렷ᄂᆞᆫ ᄃᆞᆺ[16]

<본사 1- 춘경>

뜰 높은 곳에 작은 집을 지어 내니
마루에 난 창이 씻은 듯이 말끔한데 시야가 넓어지는 구나
은자의 거처에 소나무와 대나무는 새 빛을 띠고 있고
십리 강과 산이 눈 앞에 벌려 있으니
달빛이 비치는 집과 바람이 부는 난간에 할 일 없이 기대어
듣거니 보거니 좋은 흥취를 자아내는 일이 많기도 많구나
호수에 비친 하늘의 봄 빛에 북두칠성 자루조차 돌아 오니
볕이 잘 드는 언덕에 가는 풀의 새싹이 푸르렀고
모래톱의 약한 버들 옛 가지가 새 가지로 바뀔 때
강가 마을에 내리는 저녁비가 먼 들에서 건너 오니
맑고 시원한 저 경치 시흥도 돕거니와
약초를 심은 산밭을 잘 하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봐 아이들아 소에게 풀을 충분히 먹여보자꾸나.
여와씨가 하늘을 깁던 늙은 돌이 남아 있어
서쪽 창 밖의 가까운 곳에 여기저기 솟은 산봉우리가 되었으니
쌓거니 서있거니 기괴하기도 하구나.
큰 소나무 흩어 선 속에 풀 한 포기마다 꽃이 피었으니
붉은 성 아침 비에 붉은 안개 젖었는 듯
술병 차고 노는 사람 매일 같이 올라가니
광채가 강하고 선명한 봄빛이 얼마나 많은 모양을 본떴는가?
금오산 십이봉이 넓은 들에 둘러 있으니
나는 듯 머무는 듯 그 기상이 기묘한 경치로구나
변화무쌍한 푸른 아지랑이가 미인의 눈썹처럼 빗겨 있어
모이는 듯, 흩어지는 듯, 그 모양이 다채롭기도 하구나.
푸르스름한 진면목이 보이는 듯 숨는 모양은
뛰어난 그림 솜씨로 수묵 병풍화를 그려놓은 듯 하구나.

---

1) 삼경: 은자의 거처, 중국 한나라의 은사 장허가 집 정원에 소나무, 대나무, 국화를 심은 세 길을 내었다는 고사에서 유래,
2) 월호풍령: 달빛이 비치는 집과 바람이 부는 난간 - 아름다운 달밤의 풍취를 환기!
3) 승취: 좋은 흥취를 자아내는 일
4) 두병: 북두 칠성을 국자 모양으로 표현할 때, 국자의 자루 모양을 구성하는 세 개의 별
5) 북두칠성의 두병이 북극성과 일직선이 될 때 입춘(양력 2월 4일경)이 된다. '입춘'이 도래했음을 의미.(입춘은 봄의 시작!)
6) 엄: 움, 새싹
7) 옛 가지가 '눕는다'는 것은 새 가지가 돋아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8) 직전 행과 이 행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이미지와 조응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9) 중국 상고시대 전설상의 여황제인 여와씨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 오색 돌을 가지고 그 구멍을 메웠다는 신화
10) 적성: 붉은 성, 여기서는 붉은 꽃이 옹기종기 핀 모습을 표현한 것.
11) 시적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
12) 뷘 날 업시: 빈 날 없이
13) 일이 많은: 변화무쌍한
14) 미인의 눈썹
15) 용면호수: 중국 송나라 시대 화가인 '이공린'의 탁월한 그림 솜씨
16) "금오산~그렷ᄂᆞᆫ ᄃᆞᆺ" 의 부분에서, 시적 화자는 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본사 2 - 하경>

잔화(殘花)ᄂᆞᆫ ᄇᆞᆯ셔 디고 백일(白日)이 점점(漸漸) 기니[1]
장제(長堤) 눈엽(嫩葉)이 새 그ᄂᆞᆯ 어릴 저긔[2]
형비(荊扉)[3]ᄅᆞᆯ 기피 닷고 낮ᄌᆞᆷ을 잠ᄭᅡᆫ 드니
교만(驕慢)ᄒᆞᆫ 굇고리 ᄭᅵ올 주리 무ᄉᆞ 일고
긔파[4] ᄀᆞᄂᆞᆫ 길히 초연이 기픈 고ᄃᆡ
목적(牧笛) 삼롱성(三弄聲)이 한흥(閑興)을 도와낸다
오서산(烏棲山) 두렷ᄒᆞᆫ 봉(峯) 반공(半空)의 다하시니
건곤원기(乾坤元氣)ᄂᆞᆯ 네 혼자 타 잇고야
조모(朝暮)애 ᄌᆞᆷ긴 안개 ᄇᆞ라보니 기이(奇異)ᄒᆞ다
몃 번 시우(時雨) 되야 세공(歲功)을 일웟ᄂᆞᆫ다[5]

<본사 2 - 하경>

시든 꽃은 벌써 지고 낮이 점점 길어지니
긴 강둑에 난 어린잎이 새 그늘을 만들 적에
문짝을 깊이 닫고 낮잠을 잠깐 드니
제 소리를 뽐내는 꾀꼬리가 깨우니 무슨 일인가?
기이한 꽃과 풀이 피어 있는 길에 풀 그늘 우거진 깊은 곳에
목동이 부는 세 가지 피리 소리가 한가한 흥취를 돋아 내는구나
오서산 뚜렷한 봉우리가 공중에 닿았으니
하늘과 땅의 기운을 너 혼자 담았구나!
아침과 저녁에 잠긴 안개를 바라보니, 그 모습이 기이하다
몇 번 때를 맞춰 비가 오니 한 해 농사를 이루었구나

<본사 3 – 추경>

오동(梧桐) 닙히 디고 흰 이ᄉᆞᆯ 서리 되니[6]
서담(西潭) 깁픈 골애 추색(秋色)이 느저 잇다
천림(千林) 금엽(錦葉)[7]이 이월화(二月花)[8]ᄅᆞᆯ 브놀소냐[9]
동(東)녁 두던 밧긔 크나큰 너븐 들히
만경(萬頃) 황운(黃雲)이 ᄒᆞᆫ빗치 되야 잇다
중양(重陽)[10]이 거의로다 내노리 ᄒᆞ쟈스라
블근 긔[11] 여믈고 눌은 ᄃᆞᆰ기 ᄉᆞᆯ져시니
술이 니글션졍 버디야 업ᄉᆞᆯ소냐
전가(田家) 흥미(興味)ᄂᆞᆫ 날로 기퍼 가노매라
살여흘 긴 몰래예 밤블[12]이 ᄇᆞᆯ가시니
게 잡ᄂᆞᆫ 아히ᄃᆞᆯ이 그ᄆᆞᆯ을 흣텨 잇고
호두포(狐頭浦)[13] 엔 구븨예 아젹믈[14]이 미러오니
돗ᄃᆞᆫ뷔 애내성(欸乃聲)[15]이 고기 ᄑᆞᄂᆞᆫ 댱ᄉᆡ로다
경(景)도 됴커니와 생리(生理)라 괴로오랴

<본사 3 – 추경>

오동나무 잎이 지고 흰 이슬이 서리가 되니
서쪽 연못 깊은 골짜기에 가을빛이 늦어 있다.
숲속의 단풍이 이월의 봄꽃을 부러워 하겠느냐?
동쪽 언덕 밖에 크나큰 넓은 들에
넓은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가 한 빛이 되어 있다
중양절이 거의 다가왔다. 고기잡이 하자꾸나.
붉은 게가 여물고 누런 닭이 살쪄 있으니,
술이 익었는데 벗이야 없을소냐?
농가의 흥미가 날이 갈수록 깊어 가는구나
물살 빠른 여울 주변의 긴 모래밭에 밤 불이 깊었으니
게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흩어 놓고
호두포 먼 굽이에 밀물이 밀려 오니
돛단배의 어부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고기를 파는 장사로구나.
경치도 좋거니와, 생활이 괴롭겠는가?

---

1) **<u>봄 → 여름의 계절 변화를 의미</u>**
2) 어린 잎이 자라서 그늘을 만든다는 의미
3) 가시나무로 짜 만든 문짝
4) 긔파: 기파이초(奇葩异草)
5) 시적 화자는 이 행과 같이, 그저 자연을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u>농민들의 생업에 대한 관심</u>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u>사대부로서 백성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모습</u>이라 할 수 있다.
6) **<u>여름 → 가을의 계절 변화를 의미</u>**
7) 천림금엽: 온 숲에 단풍이 들어 아름다운 비단과 같은 모습
8) 이월화: 이월에 피는 꽃 – 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입춘(立春)이 양력 2월 4일경임을 고려할 때, <u>봄에 피는 꽃</u>을 의미
9) 가을 경치가 봄 경치 못지 않다는 의미를 설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0) 음력 9월 9일의 옛 명절,
11) 민물 게를 의미
12) 밤블: 밤에 게를 잡기 위해 켠 횃불을 의미
13) 호두포: 충남 예산 인근의 포구로 추정됨
14) 아젹믈: 밀물
15) 애내성: 어부가 배를 저으며 부르는 노랫소리

<본사 4 – 동경>

ᄀᆞᆯ히 다 디나고 북풍(北風)[1]이 노피 부니[2]
긴 하ᄂᆞᆯ 너븐 들히 모설(暮雪)이 ᄂᆞ니더니
이윽고 경락(境落)[3]이 각별(各別)ᄒᆞᆫ 천지(天地) 되야
원근(遠近) 봉만(峯巒)은 백옥(白玉)을 믓거 잇고
야당(野堂)[4] 강촌(江村)을 경요(瓊瑤)[5]로 ᄭᅮ며시니
조화(造化) 헌ᄉᆞᄒᆞᆫ 줄 이제야 더 알과라[6]
천기 늠렬(天氣凜烈)ᄒᆞ야 빙설(冰雪)이 싸혀시니
교원(郊園) 초목(草木)이 다 최절(摧折)ᄒᆞ얏거ᄂᆞᆯ
창밧긔 심근 매화(梅花) 암향(暗香)[7]을 머곰엇고
재 우희 셔 잇ᄂᆞᆫ 솔 프른 빗치 의구(依舊)ᄒᆞ니
본ᄃᆡ 삼긴 절(節)이 세한(歲寒)ᄒᆞ다 변(變)ᄒᆞᆯ소냐[8]
압뫼히 자던 안개 ᄒᆡᆺ빗츨 ᄀᆞ리오니
죽림(竹林)의 ᄲᆞᆯ린 서리 못 미처 노갓고야
소노(小爐)[9]ᄅᆞᆯ 나외 혀고 창(牕)을 닷고 안자 이셔
일주(一炷) 청향(淸香)의 세념(世念)이 그처시니
단표(簞瓢)[10] 뷔다 ᄒᆞ야 흥(興)이야 업ᄉᆞᆯ소냐[11]
내 건너 ᄲᅳᆫ 뫼 아래 거친 ᄆᆞᄋᆞᆯ 두서 집이
노수시문(老樹柴門)[12]애 섯긘 ᄂᆡ[13] 빗겨시니
의희(依稀)[14]ᄒᆞᆫ 우타리 화도중(畫圖中) ᄀᆞᄐᆞᆯ시고
우양(牛羊)이 ᄂᆞ려오니[15] 오ᄂᆞᆯ도 져믈거다
석문(石門) 노픈 봉(峯)[16]애 석양(夕陽)이 ᄇᆞᆯ갓ᄂᆞᆫᄃᆡ
우러 녜ᄂᆞᆫ 기려기 가ᄂᆞᆫ ᄃᆞᆺ 도라 오니
형양(衡陽)[17]이 아니로ᄃᆡ 회안봉(回雁峰)[18]은 여긔런가[19]
사양(斜陽) 긴 ᄃᆞ리예 오명가명 ᄒᆞᄂᆞᆫ 행인(行人)
어ᄃᆞ러 향(向)ᄒᆞ노라 뵈얏비 가ᄂᆞᆫ다

<본사 4 – 동경>

가을이 다 지나고 겨울바람이 높이 부니
긴 하늘 넓은 들에 저녁 눈이 날리더니
이윽고 마을이 특별한 세상이 되어
멀고 가까운 산봉우리는 백옥을 묶어 놓았고
들에 있는 집과 강마을을 아름다운 구슬로 꾸몄으니
조물주가 야단스러운 줄 이제야 더 알겠구나
추위가 살을 엘 듯 심하여 얼음과 눈이 쌓였으니
들과 정원의 풀과 나무가 다 꺾이었거늘
창밖에 심은 매화가 그윽한 향기를 머금었고,
언덕 위에 서 있는 소나무 푸른 빛이 예전과 같으니
본디부터 가지고 있던 절개가 날이 춥다고 변하겠는가?
앞산에 자던 안개가 햇빛을 가리니,
대나무 숲에 뿌려진 서리가 미처 녹지 못했구나
작은 향로를 내어 켜고 창문 닫고 앉아 있어
한 심지 맑은 향에 세상에 대한 생각이 그쳤으니
단표가 비었다 한들, 흥이야 없겠느냐?
시냇물 건너 다른 산 안에 거칠게 보이는 마을의 두어 집이
시립문에 옅게 낀 안개가 빗겨 있으니
보일 듯 말 듯 한 울타리가 그림 속 풍경 같구나.
소와 양이 내려오니 오늘도 다 저물었다.
높은 석문봉에 석양이 밝았는데
울며 가는 기러기가 가는 듯 돌아오니
이곳이 형양 땅은 아니로되, 회안봉이 바로 여기인가
저녁 햇빛이 비치는 긴 다리에 오가는 행인은
어디로 향하는가 바삐도 가는구나

---

1) 북풍: 겨울바람
2) **가을 → 겨울의 계절 변화를 의미**
3) 경락: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촌락
4) 야당: 들판에 있는 집, 여기서는 시적 화자가 기거하는 월선헌을 의미
5) 아름다운 구슬
6)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만든 조물주의 솜씨에 감탄하고 있음
7) 암향: 매화의 그윽한 향기
8) 이 구절을 통해, 시적 화자가 매화/소나무의 절개를 칭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가 사대부로서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9) 소노: 작은 향로(향을 피우는 자그마한 화로)
10) 단표: 단사표음(簞食瓢飮-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과 표주박에 든 물)의 준말,
11) 시적 화자는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설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2) 노수시문: 오래 된 나무가 지켜서 있는 사립문
13) 섯긘 ᄂᆡ: 옅게 낀 안개
14) 의희: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상태
15) 언덕에서 풀을 뜯던 소와 양을 의미
16) 석문 높은 봉: 충남 예산의 석문봉(해발 653m)을 의미
17) 형양: 중국 호남성에 있는 고을명
18) 회안봉: 중국 호남성 형양(지금의 중국 후남성 헝양시)에 있는 봉우리로, 옛 중국인들은 겨울 철새인 기러기들이 이 봉우리의 높이로 인해 넘어서 날아갈 수 없어,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했다.
19) 시적 화자는 기러기가 날아갔다가 다시 온 모습을 보고 중국 형양의 회안봉을 생각하고 있다.

용산(龍山)[1] 외로온 뎔 언제브터 잇돗던고	용산의 외로운 절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경자(磬子)[2] 믈근 소릐 ᄇᆞ람 셧거 디나가니	경자 맑은 소리 바람 섞여 지나가니
알외라 늘근 즁이 예불(禮佛)[3]ᄒᆞᆯ 져기로다	알겠구나, 늙은 중이 예불할 시간이로구나.
강교(江橋) ᄎᆞᆫ 남긔 명색(暝色)[4]이 가다가니	강다리 주변을 채우고 있는 나무에 어둑어둑한 빛이 가득하니
서아(棲鴉)[5]ᄂᆞᆫ ᄂᆞ라 들고 프른 모히 멀리 뵌다	둥지를 만든 까마귀는 날아 들고 푸른 산이 멀리 보인다.
한수(閑愁)[6]ᄅᆞᆯ 못 금(禁)ᄒᆞ야 ᄑᆞ람을 기리 불고	쓸데 없는 근심 걱정을 못 금하여 휘파람 길게 불고
수죽(脩竹)[7]을 지혀 이셔 ᄃᆞᆯ빗ᄎᆞᆯ 기ᄃᆞᆯ오니	긴 대나무에 기대어 달빛을 기다리니
숨구ᄌᆞᆫ 녈구로미[8] ᄀᆞ릴 쥬리 므ᄉᆞ 일고[9]	심술궂은 지나가는 구름이 가릴 줄이 무슨 일인가?
장풍(長風)이 헌ᄉᆞᄒᆞ여 옥우(玉宇)[10]ᄅᆞᆯ 조히 쓰니[11]	센 바람이 요란하여 옥우를 깨끗이 하니
일편빙륜(一片氷輪)[12]이 ᄆᆞᆯᄀᆞᆫ 빗치 녜로왓다[13]	환한 겨울 달빛의 맑은 빛이 예전과 같구나.
천암만학(千岩萬壑)[14]의 슬ᄏᆞ지 ᄇᆞᆯ가시니	(달빛이) 온 산 골짜기에 실컷 밝아 있으니
단대(壇臺)[15] 늘근 솔이 가지ᄅᆞᆯ 혜리로다	단대 옆의 늙은 소나무 가지 숫자를 다 셀 수 있겠구나
소렴(疎簾)[16]을 고텨 것고 기픈 밤의 안자시니	성긴 주렴을 다시 걷고 깊은 밤에 앉아 있으니
동봉(東峯) 도ᄃᆞᆫ ᄃᆞᆯ이 서령(西嶺)의 거디도록	동쪽 봉우리에서 돋은 달이 서쪽 언덕에 걸리도록
첨영(簷楹)[17]ᄋᆡ 치 빗최여 침석(枕席)의 쏘야시니	처마밑 기둥에 다 비추어 잠자리에 쏘였으니
넉시 다 ᄆᆞᆰ으니 몽매(夢寐)[18]ᄃᆞᆯ 이실소냐[19]	넋이 다 맑아지니 꿈인들 있겠는가?
어와 이 청경(淸景) 갑시 이실 거시런ᄃᆞᆯ	아, 이 맑은 경치 값이 있을 것이라면
적막(寂寞)히 다든 문애 ᄂᆡ 분(分)으로 드러오니	적막하게 닫은 문에 내 분수에 맞게 들어오니
사조(私照)[20] 업다호미 거즌말 아니로다[21]	치우치게 비치는 일이 없다 함이 거짓말이 아니로다
모첨(茅簷)[22]예 빗친 빗치 옥루(玉樓)[23]라 다ᄅᆞᆯ소냐	검소한 서재에 비친 빛이 옥루라고 다르겠는가?
청준(淸樽)[24]을 밧비 열고 큰 잔의 ᄀᆞᄃᆞᆨ 부어	술동이를 바삐 열고 큰 잔에 가득 부어
죽엽(竹葉) ᄀᆞᄂᆞᆫ 술ᄅᆞᆯ ᄃᆞᆯ빗조차 거후로니	죽엽주 맑은 술을 달빛 따라 기울이니
표연(飄然)ᄒᆞᆫ 逸興(일흥)이 져기면 ᄂᆞᆯ리로다[25]	가볍고도 한가로운 흥취가 잘 하면 날아가겠구나!
이적선(李謫仙)이 이러ᄒᆞ여 ᄃᆞᆯ을 보고 밋치ᄃᆞᆺ다	이태백이 이러하여 달을 보고 미쳤도다.

---

1) 충남 예산에 있는 산의 명칭
2) 경자: 불전에 예불을 올릴 때, 절하는 행위를 인도하기 위한 소리를 내기 위해 쓰는 기구
3) 예불: 불전에 모셔진 부처에게 아침,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절을 올리는 행위
4) 명색: 저녁 해질 무렵의 어둑어둑한 빛
5) 서아: 보금자리(=둥지)를 만든 까마귀
6) 한수: 쓸데 없는 근심걱정
7) 기다란 대나무
8) 녈구로미: 지나가는 구름이
9) 사대부의 시가에서 달빛은 임금의 선정, 달을 가로막는 구름이 간신배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typical한 상징을 바탕으로 이 구절을 파악하면 간신배들이 임금의 선정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물론 <보기>로 임금-간신배와 관련된 내용이 주어지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석 하는 것이다)
10) 옥우: 옥황상제가 머무는 곳
11) 바람이 세게 불어 구름을 다 없애버렸다는 뜻, 9)에서 제시한 관점에서 해석하면, 간신배가 사라진 조정을 뜻한다
12) 일편빙륜: 겨울 달빛이 환한 것을 얼음으로 만든 바퀴에 비유함.
13) 9)에서 제시한 관점에서 해석하면, 임금이 선정을 베푸는 상황을 의미한다
14) 천암만학: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
15) 충남 예산에 있는 누각
16) 소렴: 성긴 주렴(=발)
17) 첨영: 처마 밑의 기둥
18) 몽매: 자면서 꾸는 꿈
19) 달빛이 맑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
20) 사사로이 비추지 않는다(공자의 「예기」에 일월무사조(日月無私照- 해와 달은 치우침 없이 비치지 않는다)에서 유래)
21) 9)에서 제시한 관점에서 해석하면, '천암만학의~거즌말 아니로다'를 시적 화자가 임금의 은혜를 충분히 입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2) 모재: 띠로 지붕을 이은 검소한 서재
23) 옥루: 옥으로 장식한 누각, 여기서는 임금이 계신 대궐의 누대를 뜻함
24) 청준: 맑은 술이 담긴 술동이
25)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이 좋다는 의미

<결 사>

춘하추동(春夏秋冬) 경물(景物)이 아롬답고
주야조모(晝夜朝暮)애 완상(翫賞)이 새로오니
몸이 한가(閑暇)ᄒᆞ나 귀 눈은 겨를 업다
여생(餘生)이 언마치리 백발(白髮)이 날로 기니
세상(世上) 공명(功名)은 鷄肋(계륵)[1]이나 다를소냐[2]
강호(江湖) 어조(魚鳥)이 새 밍셰[3] 깁퍼시니
옥당금마(玉堂金馬)[4]의 몽혼(夢魂)[5]이 섯기엿다[6]
초당연월(草堂煙月)[7]의 시름업시 누워 이셔[8]
촌주강어(村酒江魚)로 종일취(終日醉)를 원(願)ᄒᆞ노라
이 몸이 이러구롬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9]

- 신계영,「월선헌십육경가(月先軒十六景歌)」

<결 사>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치가 아름답고
낮 밤 아침 저녁에 경치를 즐겨 구경하는 것이 새로우니
몸은 한가하나 귀와 눈은 (경물을 완상하느라) 쉴 겨를 없다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가, 흰 머리가 날로 길어가니
세상의 공명은 계륵과 다르겠느냐?
강호에서 물고기와 새와 맺은 새로운 맹세가 깊었으니
조정 요직으로 벼슬살이 할 때가 꿈속의 넋으로 섞이었다.
초당의 달빛 아래 시름없이 누워 있어
시골의 술에 물고기 안주로 종일 취하기를 바라노라.
이 몸이 이리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다.

- 신계영,「월선헌십육경가(月先軒十六景歌)」

1) 계륵: 닭의 갈비. 먹고자 하면 먹잘 것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것을 의미
2) 속세에서의 공명을 추구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뜻
3) 자연에서 함께 지내자고 물고기, 새와 맹세를 함
4) 옥당금마: 조정에서의 요직을 의미(중국 한나라 궁궐의 옥당전과 금마문에서 유래)
5) 몽혼: 꿈
6) 자연에서 지내다 보니, 조정의 요직을 맡아 벼슬살이 하던 옛날이 아득히 먼 꿈속의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7) 초당: 초가집
   연월: ⓐ연기 같은 안개 속에 보이는 은은한 달 ⓑ (임금의 선정을 표상하는 달빛이 온 세상에 비추어)세상이 태평한 모양새
8) 연월을 ⓑ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시적화자는 임금의 선정에 따른 태평성대에 아무 시름 없이 지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음.
9) 풍류 생활을 즐기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생각하는 유학자의 자세가 나타난다.